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5.26

[반도체]
김영건
younggun.kim.a@miraeasset.com

[차이나테크]
강민희
minhui.kang@miraeasset.com

비중확대/유지

중국 반도체

강력해진 생태계 선순환 구조

AI 수요와 국산화가 만든 중국 반도체 호황

AI 수요 확대는 중국 칩메이커에게 전례 없는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CXMT의 1Q26 실적은 매출액 508억위안(YoY +719%), 영업이익 354억위안(YoY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1H26 가이던스도 매출액 1,150억위안(중간값, YoY +645%)을 제시했다. **DRAM 공급 부족으로 후발주자인 CXMT의 기회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GigaDevice 역시 레거시 메모리 중심의 ASP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Montage도 서버향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힘입어 1Q26 매출액과 OPM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속 중국 칩메이커의 공급망 내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중국 파운드리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및 IDM이 AI향 제품 중심으로 Capa를 전환하며 **레거시 공정 공급이 축소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Capa 여력이 있는 중국으로 수주가 회귀하는 흐름**이다. 여기에 견조한 자국 내 국산화 수요까지 더해지며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SMIC와 화홍반도체는 연중 가격 인상 전망을 제시했다. SMIC의 1Q26 ASP는 QoQ +2.5% 상승했으며, 2Q26 GPM 가이던스도 ASP 상승을 반영해 QoQ +2%pt 개선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반영되며 GPM의 안정적 상승을 전망하였다. 화홍반도체 역시 연평균 10~15% 이상의 ASP 상승을 전망**했다.

넘치는 수요는 적극적인 증설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CXMT는 IPO 조달 예정 금액 295억위안 중 기존 팹 공정 고도화에 75억위안, 차세대 공정 및 제품 개발에 130억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SMIC는 26년 약 80억달러의 Capex를 집행할 예정이며, 화홍반도체는 우시 Fab을 중심으로 12인치 특화공정 Capa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증설 투자의 수혜는 중국 장비사로 이어진다. NAURA는 26~27년 중국 반도체 장비 Capex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내 신규 Fab 전반에서 장비 국산화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우호적인 수요 환경 속 고강도 R&D 투자를 지속하며 글로벌 선두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축소해 나갈 전망이다.

중국 AI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최적의 대안은 ETF

금번 자료에서는 중국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리뷰했다. **AI 사이클 내 중국 반도체 수요 강세와 이에 따른 투자 확대가 선순환을 형성하며 업종 전반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견조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CXMT, Montage, SMIC, 화홍반도체, NAURA 모두 26~27년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ETF로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3191 HK, 9191 HK)과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KS 396520)을 주목**할 만하다.

CXMT(상장예정)

CXMT의 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618억위안(한화 약 13.7조원, YoY +155.6%), 영업이익 77억위안(한화 약 1.7조원, YoY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25년 하반기 이후 DRAM 가격이 급등하며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주도했다. DDR/LPDDR 제품 ASP가 각각 전년 대비 +61.0%/+24.5% 상승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

1Q26 실적은 매출액 508억위안(한화 약 11.3조원, YoY +719%), 영업이익 354억위안(한화 약 7.8조원, YoY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 DRAM 수급 타이트 지속과 제품 믹스 고도화로 수익성이 추가 상승한 영향이다. 1H26 가이던스도 중간값 기준 매출액 1,150억위안(한화 약 25조원, YoY +645%), 순이익 705억위안(YoY 흑자전환)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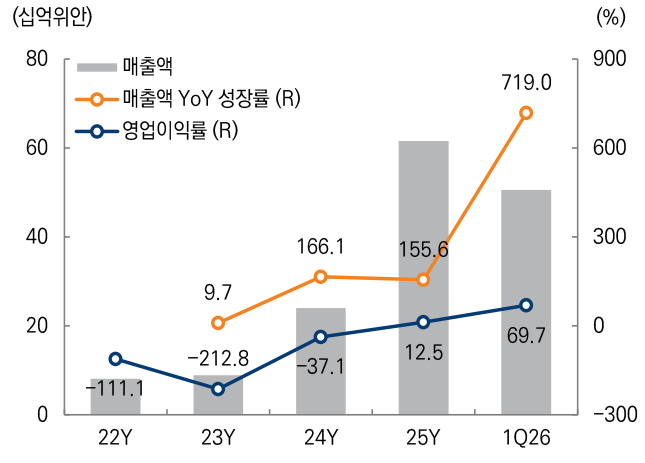
제품별 매출 비중은 LPDDR 계열 비중 66.4%, DDR 계열 비중 31.9%로, 현재 매출 구조는 모바일 수요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서버향 고객과, 샤오미, 아너, OPPO, vivo, Transsion, 레노버 등 세트향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상위 5개 고객의 매출 비중이 약 68%를 차지**한다.

24년 말 DDR4 자체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 DDR5 및 LPDDR5/5X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을 완료했다. 믹스 고도화와 단가 상승 효과가 반영되며 DDR 계열 제품의 25년 GPM은 40.2%(YoY +34.9%pt), LPDDR 계열 제품의 GPM은 44.3%(YoY +47.5%pt)까지 개선됐다. 또한 **HBM3 개발도 진행 중이며, 26년 중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는 24년 4세대 공정 개발을 완료한 이후, '세대 건너뛰기(跳代研发)' 전략을 통해 1세대 공정에서 4세대 공정으로 단기간 내 양산 전환에 성공했다. 현재는 5세대 공정을 개발 중이며, EUV 장비 없이 DUV 기반 자체 공정만으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양산 역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동률 역시 23년 87.1%에서 25년 95.7%까지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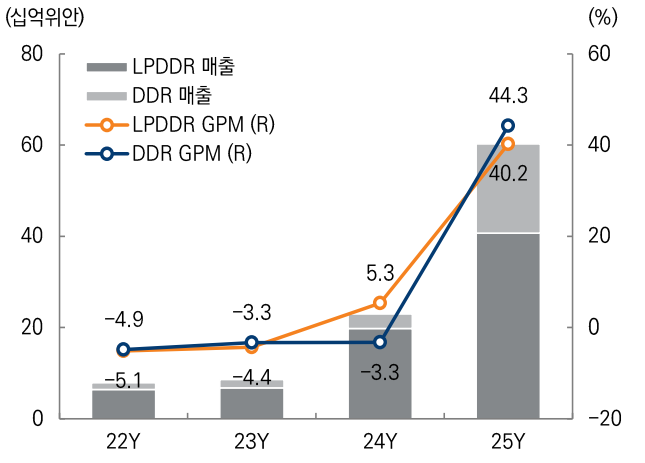
동사는 현재 과창판 상장을 목표로 IPO를 진행 중이다. 총 **조달 예정 금액은 295억위안(한화 약 6.5조원) 규모로, 기존 팹 공정 고도화에 75억위안, 차세대 공정 및 제품 개발에 130억위안, 5세대 이후 공정 기초 연구에 90억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DRAM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투자 집행을 통한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1. CXMT 연간 실적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CXMT 제품별 매출 및 GPM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GigaDevice Semiconductor (조이창신, 603986 CH)

GigaDevice의 **1Q26 실적은 매출액 42억위안(한화 9,300억원, YoY +119.4%), 영업이익 17억위안(한화 3,800억원, YoY +1,030.2%)으로 대폭 성장**했다. 레거시 DRAM 수급 타이트가 지속되는 가운데, DDR4 및 LPDDR4/5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으로 메모리 ASP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

레거시 DRAM 부문은 공급 부족에 따른 ASP 상승 효과가 본격 반영되며 전분기 대비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크게 개선되었다. 올해 초 LPDDR4 소용량 제품과 DDR4 8Gb 신규 공정 제품의 테이프아웃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양산 진입이 예상된다. 향후 DDR4 8Gb/4Gb를 주력으로, LPDDR4는 2Gb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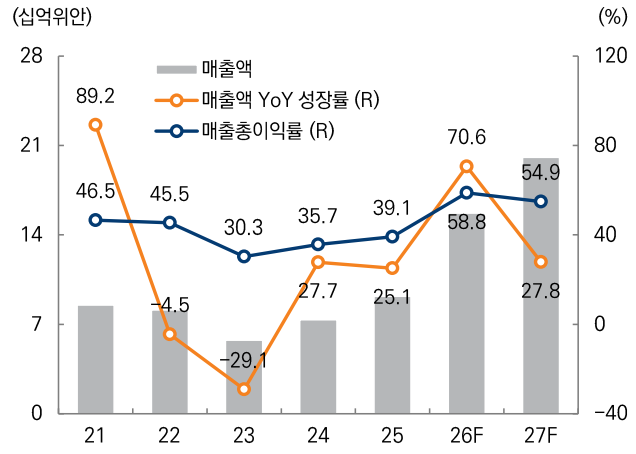
SLC NAND 부문은 글로벌 대형 IDM의 2D NAND 생산 철수로 점유율 확대 기회가 부각되고 있다. 동사는 업계 공급 여력 제한으로 쇼티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적으로 추가 ASP 상승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NOR Flash 역시 서버향 수요 확대에 따른 공급 타이트로 완만한 가격 상승 흐름이 연내 지속될 전망이다.

MCU 부문은 산업용/소비가전/자동차 등 전방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크게 성장했다. 특히 **AI 관련 신규 응용처 수요가 강했고, 고객사의 재고 보충 사이클도 동반되며 2Q26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산업용/가전/광모듈/로봇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NPU 내장 AI MCU 신제품 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사는 공급망 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엣지 AI향 커스텀 메모리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중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작년 하반기 샘플 납품 및 소량 생산 단계에 진입해 연중 양산 전환이 기대된다. 또한 **CXMT와의 26년 웨이퍼 구매 약정 금액이 57억위안으로 25년 실제 구매액(11억위안) 대비 5배 확대되며, 레거시 DRAM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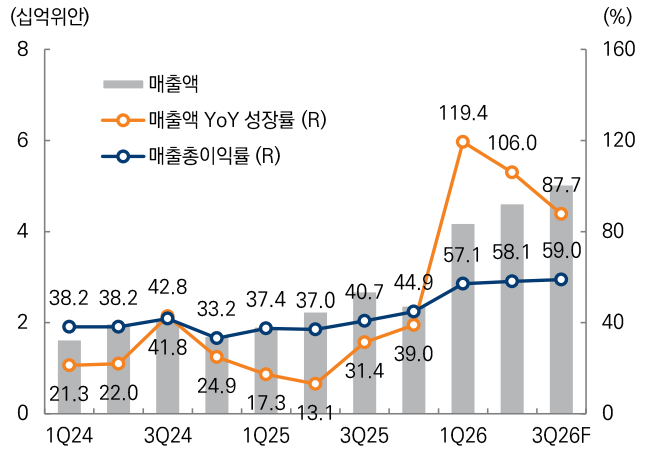
동사의 26년 실적(컨센서스)은 매출액 157억위안(YoY +70.6%), GPM 58.8%, 27년에는 매출액 201억위안(YoY +27.8%), GPM 54.9%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거시 DRAM, SLC NAND, NOR Flash, MCU 전 제품군에서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전반의 공급 타이트 기조가 장기화되며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GigaDevice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GigaDevice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Montage Technology (란기과기, 688008 CH)

Montage의 **1Q26 실적은 매출액 15억위안(한화 3,300억원, YoY +19.5%), 영업이익 7억위안(한화 1,550억원, YoY +41.3%)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OPM(45.8%) 모두 역대 최대치다. GPM 역시 69.8%(YoY +9.3%pt)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DDR5 세대 교체 및 AI 수요 확대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증가한 결과다.

특히 **인터커넥트 신제품 4종(MRCD/MDB, PCIe Retimer, CKD, CXL MXC)의 합산 매출이 2.7억위안(YoY +93.8%)를 기록**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세를 입증했다. 해당 제품군의 인터커넥트 매출 내 비중은 19%까지 확대되었으며, 신제품 비중 확대 효과로 인터커넥트 칩 부문 GPM도 71.5%(YoY +7.0%pt, QoQ +3.7%pt)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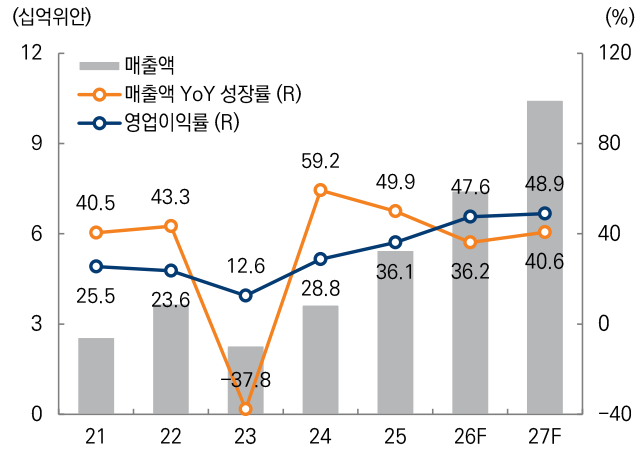
DDR5 세대 전환과 AI 수요 확대로 DDR5 RCD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다. Gen3 RCD 매출은 25년 하반기부터 Gen2를 상회했으며, Gen4도 양산을 개시했다. **Gen2 MRCD/MDB 역시 고객사 검증 수요 확대에 따라 4분기부터 출하가 급증했으며, 향후 2~3년 내 MRDIMM 대규모 상업화에 따른 매출 레버리지가 기대**된다.

올해 DDR5 Gen6 RCD와 Gen3 MRCD/MDB 엔지니어링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속도는 각각 9,200MT/s, 16,000MT/s로 이전 세대 대비 +15%, +25% 향상될 전망**이다. SerDes 기술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PCIe 7.0용 128GT/s SerDes IP 개발과 이더넷용 SerDes IP 개발을 병행 추진 중임을 밝혔다.

CXL은 동사의 차세대 성장 축이다. CXL 3.0 지원 서버 CPU 플랫폼의 양산과 함께 메모리 풀링 솔루션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CXL의 26년 본격 도입, 27년 대규모 상업화가 예상된다. 동사는 **22년 업계 최초로 CXL 표준의 MXC 칩을 출시한 바 있으며, 25년 9월 CXL 3.1 MXC 칩 발표 이후 주요 고객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선두 지위가 확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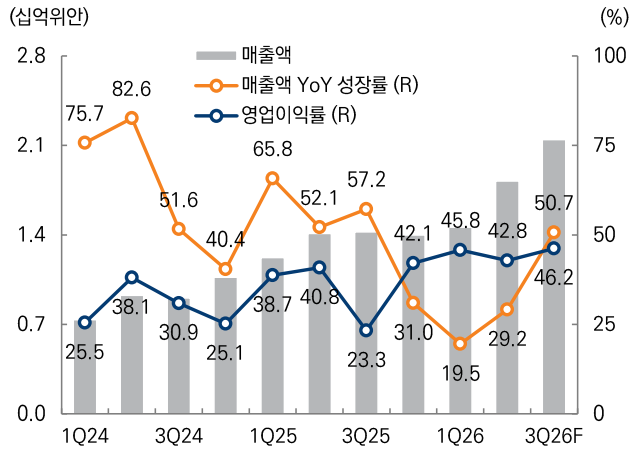
동사의 **26년 실적(컨센서스)은 매출액 74억위안(YoY +36.2%), 영업이익률 47.6%, 27년에는 매출액 104억위안(YoY +40.6%), 영업이익률 48.9%로 작년에 이어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DDR5 MRDIMM 및 MCRDIMM 채택 확대에 더해 PCIe 5.0 이상, CXL 등 차세대 인터커넥트 칩의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며 수익성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5. Montage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Montage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MIC (981 HK)

SMIC의 **1Q26 실적은 매출액 25.1억달러(YoY +11.5%), 영업이익 2.5억달러(YoY -20.1%)를 기록**했다. GPM은 제품 ASP 상승과 출하량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 이연 효과로 20.1%(QoQ +0.9%pt)까지 상승했다. 반면 **OPM은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총 감가상각비 증가가 반영되며 9.9%(QoQ -2.1%pt)로 하락**하였다.

동사의 **1Q26 출하량은 QoQ -0.2%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제품 ASP는 단가 상승 및 믹스 개선 효과로 QoQ +2.5% 상승**했다. 특히 AI 시스템향 전력관리, 데이터전송 등 주변 칩 수요 확대로 BCD/로직 공정 수주가 강세를 보였고, NOR Flash/SLC NAND 등 독립형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관련 공정 수요도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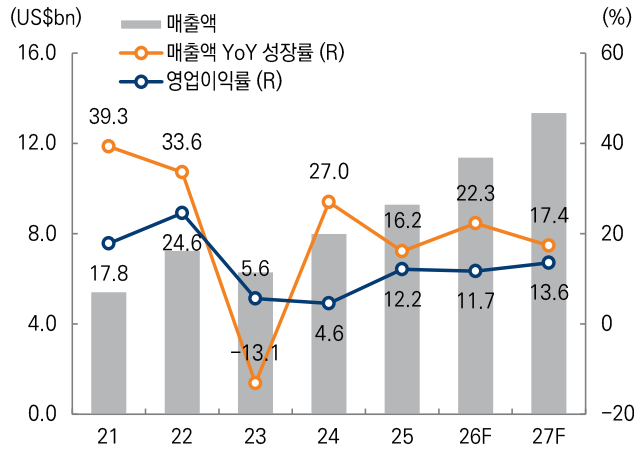
글로벌 파운드리 및 IDM이 AI향 제품 중심으로 Capa를 전환하며 레거시 공정 공급이 축소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Capa 여력이 있는 중국으로 수주가 회귀하는 흐름이다. 여기에 견조한 자국 내 국산화 수요까지 더해지며 공급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동사는 이러한 **수급 환경이 최대 3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사는 타이트한 수급에 대응해 가격 인상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추진중이다. **1Q26 8인치 매출은 단가 인상 효과로 QoQ +6% 성장했으며, 2Q GPM 가이던스도 ASP 상승을 반영해 20~22%(QoQ +2%pt)로 제시**됐다. 하반기에도 가격 인상 효과가 추가 반영되어, 연간 감가상각비 YoY +30% 부담에도 GPM의 안정적 상승을 전망하였다.

동사는 당분기 12인치 환산 월 9K장 규모의 신규 Capa를 추가했다. 26년 Capex는 약 80억 달러 수준으로 집행 예정이다. 25년 Capex 초과 집행에 대해서는 예상을 상회한 고객 수요, 지정학적 리스크, 장비 납기 장기화에 선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수요 및 장비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26년 Capex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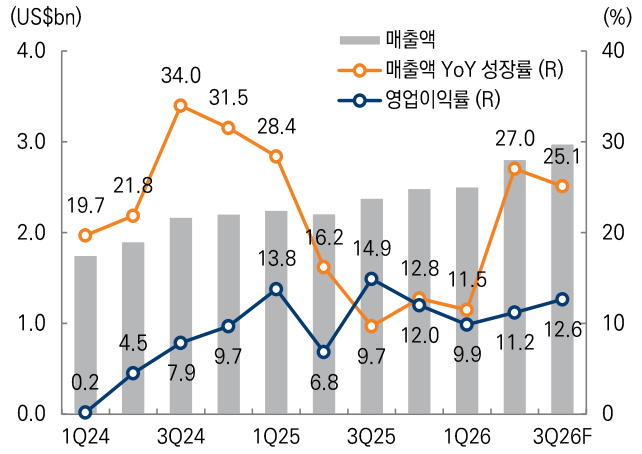
동사의 **26년 실적(컨센서스)은 매출액 114억달러(YoY +22.3%), OPM 11.7%, 27년에는 매출액 134억달러(YoY +17.4%), OPM 13.6%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공정에서의 제약은 존재하나, 특화 공정 수요와 국산화 수요 환경이 우호적이다. 26년에는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OPM이 소폭 하락하겠으나, 27년부터 수익성이 반등할 전망이다.

그림 7. SMIC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SMIC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Huahong Semiconductor (화홍반도체, 1347 HK)

화홍반도체의 **1Q26 실적은 매출액 6.6억달러(YoY +22.2%), 영업이익 -487만달러(YoY 적자 지속)를 기록**했다. 웨이퍼 출하량과 ASP가 모두 개선되며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제품 ASP 상승과 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되며 GPM은 13.0%(YoY +3.8%pt)로 상승했다.

동사의 **1Q26 Capa는 8인치 환산 기준 월 489K장(YoY +18.4%, QoQ +0.6%)으로 증가했으며, 가동률은 99.7%(YoY -3.0%pt, QoQ -4.1%pt)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품별로는 임베디드 비휘발성 메모리, 독립형 플래시 메모리, 아날로그 및 전력관리 제품군 매출이 각각 YoY +41.7%, +33.2%, +25.8% 증가하며 특화 공정 중심 수요 강세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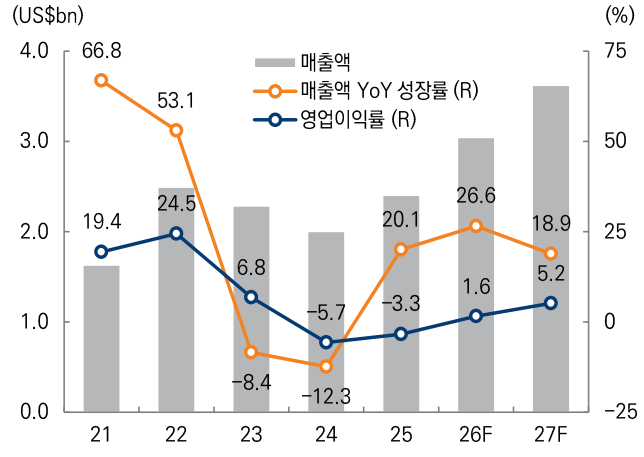
동사는 제품 공급 타이트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 연평균 10~15% 이상의 ASP 상승을 전망**했으며, 특히 메모리 플랫폼 등 수요가 강한 제품군은 평균을 상회하는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미향 매출 비중도 13.0%(YoY +2.6%pt)로 확대되었는데, 글로벌 공급망 Capa 부족에 따라 중국 파운드리로의 수요 회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인치 포트폴리오로의 전환도 순조롭다. 당분기 동사의 12인치 매출 비중은 62.7%(YoY +5.4%pt)로 상승했다. **우시 Fab9A는 3Q26 풀캐파 도달 후 연말~연초부터 본격 출하가 예상되며, Fab9B는 27년 생산 개시, 28년 풀캐파 달성이 목**표다. Huali Micro(Fab5) 인수 역시 2H26 완료 예정으로, 40/55nm 중심의 12인치 특화 공정 Capa 확대가 기대된다.

특화 공정 외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동사는 GaN 및 SiC 화합물 반도체 시장 진출을 확정했으며, GaN은 자체 개발, SiC는 합작법인 설립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리콘 포토닉스 역시 CIS 공정 등 기존 역량과의 기술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진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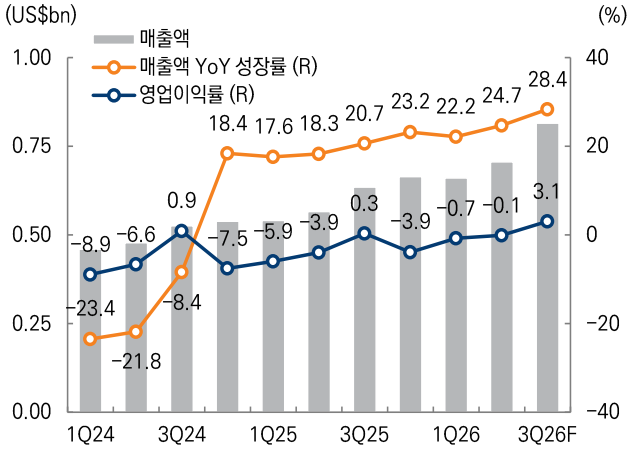
동사의 26년 실적(컨센서스)은 매출액 30억달러(YoY +26.6%), OPM 1.6%, 27년에는 매출액 36억달러(YoY +18.9%), OPM 5.2%로 전망된다. **특화 공정 수요 강세에 따른 높은 가동률 유지와 제품 ASP 상승 효과로 3Q26 OPM 3.1%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연간 흑자 전환 이후, 27년에는 수익성 개선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림 9. 화홍반도체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화홍반도체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NAURA Technology (북방화창, 002371 CH)

NAURA의 **1Q26 실적은 매출액 103억위안(한화 약 2.3조원, YoY +25.8%), 영업이익 18억위안(한화 약 4,000억원, YoY -0.6%)을 기록**했다. 이익 성장률이 외형 성장률보다 낮은 이유는 차세대 노드 장비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5년 기준으로는 매출의 14%인 52억위안(한화 약 1.1조원)이 투입되었다.

매출 규모 면에서 25년 기준 세계 5위로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하는 등 ASML이 독점하고 있는 EUV 노광 기술 등 일부 최첨단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정 장비 영역에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가는 중이다. **중국 내 실사용 환경에서는 이미 28nm ~ 14nm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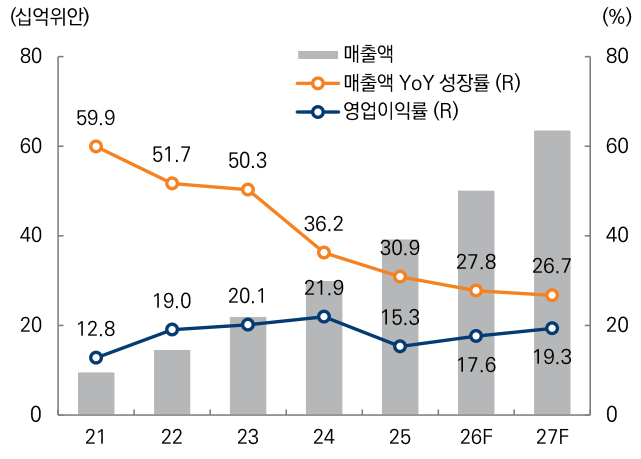
동사는 26~27년에도 고강도 R&D 투자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투자 영역은 선단 로직 공정, 선단 메모리 공정, 첨단 패키징에 집중될 예정이며, 동사에 따르면 2~3년 후부터 순차적인 수주 및 매출 기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간 R&D 비용의 매출 대비 비중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사는 26~27년 중국 반도체 장비 Capex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업황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동인은 AI향 신규 응용처 확산에 따른 생산능력 확충과 국산화 대체 수요 가속화이다. **영역별로는 메모리 및 선단 공정향 수요가 고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숙 공정과 특화 공정향 수요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내 신규 웨이퍼 팹 전반에서 장비 국산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로직, 메모리, 전력, 특화 공정 등 전 영역에서 국산 장비 도입이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동사는 이러한 우호적 수요 환경 속에서 고부가 제품 양산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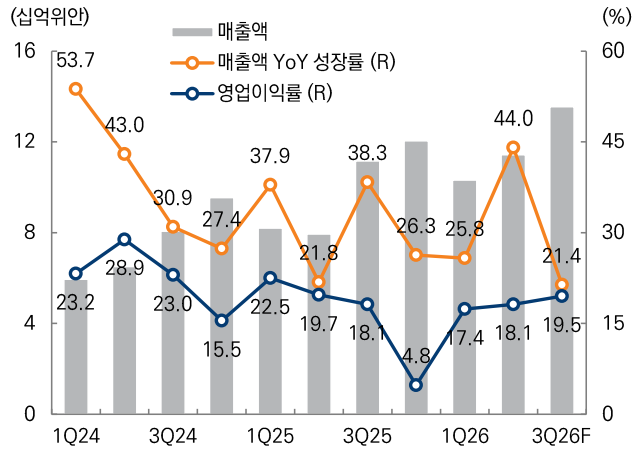
동사의 **26년 실적(컨센서스)은 매출액 503억위안(YoY +27.8%), OPM 17.6%, 27년에는 매출액 637억위안(YoY +26.7%), OPM 19.3%로 전망**된다. 중국 내 Fab 투자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매출 성장이 전망되나, AMEC, ACM 등 중국 내 후발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및 정부 지원의 분산이 불가피해 마진율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1. NAURA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NAURA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TF Analysis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5.26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설정일	2020.08.06
순자산 (백만HKD)	2,806.96
Total Expense Ratio (%)	0.68
구성 종목 수	20

(%)	1M	6M	12M
절대주가	34.5	64.0	115.4
상대주가	34.7	64.8	117.6

[반도체]
김영건
younggun.kim.a@miraeasset.com

3191 HK, 9191 HK · 글로벌 AI · 홍콩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中 AI 반도체 생태계를 한 바구니에

AI 수요와 국산화가 만든 중국 반도체 호황

AI 수요 확대는 중국 칩메이커에게 전례 없는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CXMT의 1Q26 실적은 매출액 508억위안(YoY +719%), 영업이익 354억위안(YoY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1H26 가이던스도 매출액 1,150억위안(중간값, YoY +645%)을 제시했다. DRAM 공급 부족으로 후발주자인 CXMT의 기회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GigaDevice의 영업이익이 YoY 10배 이상 증가했고, Montage도 1Q26 매출액과 OPM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중국 파운드리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및 IDM이 AI향 제품 중심으로 Capa를 전환하며 레거시 공급이 축소된 가운데, Capa 여력이 있는 중국으로 수주가 회귀하는 흐름이다.

SMIC와 화홍반도체는 연중 가격 인상 전망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반영되며 GPM의 안정적 상승을 전망하였다. 넘치는 수요는 적극적인 증설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CXMT는 IPO 조달 예정 금액 295억위안 중 기존 팹 공정 고도화에 75억위안, 차세대 공정 및 제품 개발에 130억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SMIC는 26년 약 80억달러의 Capex를 집행할 예정이며, 화홍반도체는 우시 Fab을 중심으로 12인치 특화공정 Capa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증설 투자의 수혜는 중국 장비사로 이어진다. NAURA는 26~27년 중국 반도체 장비 Capex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리뷰한 결과, AI 사이클 내 중국 반도체 수요 강세와 이에 따른 투자 확대가 선순환을 형성하며 업종 전반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견조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CXMT, GigaDevice, Montage, SMIC, 화홍반도체, NAURA 모두 26~27년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AI 반도체에 대한 높은 편입 비중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의 주요 보유 기업은 Cambricon(9.9%), GigaDevice(9.9%), Montage(9.4%), Hygon(9.2%)순이다. 반도체 장비, AI 반도체 기업, 파운드리, 메모리를 모두 포트폴리오에 포함한 ETF다. 특히, 편입 종목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5개사가 과창판 상장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매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동 ETF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다.

구성종목 상위 10개

순서	기업명	비중	순서	기업명	비중
1	Cambricon	10.83	6	SMIC	8.62
2	GigaDevice	9.90	7	AMEC	7.57
3	Montage	9.43	8	Hangzhou Chang Chuan	4.25
4	Hygon	9.22	9	Biwin Storage	3.56
5	NAURA	8.92	10	Piotech	3.28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5.26

396520 · 글로벌 AI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

中 AI 반도체 성장에 동참하는 법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설정일	2021.08.06
순자산 (억원)	3,696
Total Expense Ratio (%)	0.49
구성 종목 수	21

(%)	1M	6M	12M
절대주가	38.6	74.4	142.9
상대주가	0.3	-0.3	-1.2

[반도체]
김영건
younggun.kim.a@miraeasset.com

AI 수요와 국산화가 만든 중국 반도체 호황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속 중국 칩메이커의 공급망 내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CXMT의 1Q26 실적은 매출액 508억위안(YoY +719%), 영업이익 354억위안(YoY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 25년 하반기부터 전개된 DRAM 수급 타이트 지속에 더해 제품 믹스 고도화로 수익성이 추가 상승한 영향이다.

GigaDevice 역시 레거시 메모리 중심의 ASP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Montage도 서버향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힘입어 1Q26 매출액과 OPM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러한 중국 내 칩메이커 강세는 파운드리 수혜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레거시 Capa 축소와 국산화 수요 확대로 중국 파운드리는 공급자 우위에 진입했으며, SMIC와 화홍반도체는 연중 가격 인상을 예상했다. 넘치는 수요는 증설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CXMT는 IPO 조달 예정 금액 295억위안 중 기존 팹 공정 고도화에 75억위안, 차세대 공정 및 제품 개발에 130억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SMIC는 26년 약 80억달러의 Capex를 집행할 예정이며, 화홍반도체는 우시 Fab을 중심으로 12인치 특화공정 Capa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증설 투자의 수혜는 중국 장비사로 이어진다. NAURA는 26~27년 중국 반도체 장비 Capex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리뷰한 결과, AI 사이클 내 중국 반도체 수요 강세와 이에 따른 투자 확대가 선순환을 형성하며 업종 전반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견조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CXMT, GigaDevice, Montage, SMIC, 화홍반도체, NAURA 모두 26~27년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편입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 ETF의 주요 보유 기업은 GigaDevice (9.3%), Montage(9.2%), Hygon(9.2%), NAURA (8.4%), SMIC(8.5%) 순이다.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의 합이 49.8%로 변동성을 줄이고 상대적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성종목 상위 10개

순서	기업명	비중	순서	기업명	비중
1	GigaDevice	9.26	6	AMEC	7.78
2	Montage	9.22	7	Cambricon	7.37
3	Hygon	9.18	8	Hangzhou Chang Chuan	4.3
4	NAURA	8.42	9	Biwin Storage	3.48
5	SMIC	8.45	10	Piotech	3.27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